

KOSDAQ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기업분석 2022.05.27

비올 (335890)

2022년 주목할 만한 미용 의료기기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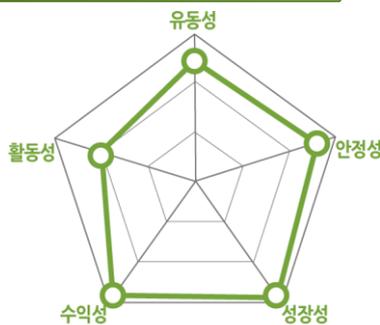
체크 포인트

- 마이크로니들 RF(고주파) 기반 미용 의료기기 생산 업체. 핵심 제품은 Scarlet, Sylfirm, Sylfirm X로 아시아, 중동, 미국, 유럽 등 수출 지역 다양
- 고부가가치 상품인 Sylfirm X는 현재 북미지역 수출 성장 견인. 2022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북미 MS 확대 및 하반기 중국 의료기기 인증 허가 준비하고 있음. Sylfirm X는 2021년 중국 시후안그룹과 체결한 단독 공급 계약(5년간) 바탕으로 CFDA(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승인 이후 실적 및 기업가치 상승 기대
- 의료장비 매출로 인한 1회용 마이크로 니들 소모품 매출 성장 가속화되고 있음. 2022년 비용 부담에도 이익률 좋은 소모품 매출 비중 상승 효과로 연결 OPM 개선(+1.2%p) 가능할 전망

주가 및 주요 이벤트



재무 지표



주: 2021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 PBR은 2021년 기준 Trailing, Fnguide WICS 분류 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마이크로니들 RF 기반한 미용 의료기기 기업

마이크로 니들링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RF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총 55개 특허, 글로벌 20개 국가 의료기기 인증을 바탕으로 60개 이상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2021년 제품별 매출 비중은 에스테틱 장비 74%, 소모품 25%, 기타 1%임. 에스테틱 장비는 RF, Laser, Led 장비로 구성되며 핵심 제품은 Scarlet, Sylfirm, Sylfirm X. Sylfirm은 아시아/중동, Sylfirm X는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동사의 수출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음

북미를 중심으로 신제품 수출 성장세

2020년 Scarlet, Sylfirm 장점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신규 미용 의료기기 Sylfirm X 출시. Sylfirm X는 동사의 장비 중 가장 높은 판매 가격으로 북미 등 선진국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음. 2022년에도 본격적인 컨퍼런스 및 현지 Key-doctor 향 마케팅으로 동사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한편 2021년 중국 시후안그룹과 Sylfirm X 단독 공급 계약(5년간)을 바탕으로 2022년 중 CFDA 승인 및 중국 런칭이 기대되고 있음. 국내 및 글로벌 미용기기 경쟁 업체들의 중국 진출도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동사의 중국 진출 성과는 기업가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장비 보급 확대 → 소모품 판매 가속화

비올의 주력 의료장비는 모두 RF(고주파) 기술에 기반하며 소모품은 1회용 마이크로니들임. 2021년 미용 의료장비 매출액 YoY 성장률 +38%를 달성했음. 의료장비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개선 효과는 2022년 소모품 매출 고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2022년 1분기의 경우 작년 북미 중심 수출된 미용 의료장비 소모품 수요 증가로 소모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억원 기록. 2022년 연간 소모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81억원 예상. 2022년 소모품 매출 비중은 30%를 기대하며 높은 마진률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판매관리비 증가를 상쇄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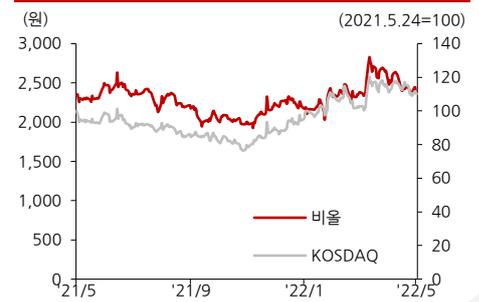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억원)	63	111	122	184	274
YoY(%)	-11.0	75.0	9.6	51.2	49.1
영업이익(억원)	8	38	34	54	84
OP 마진(%)	12.5	34.2	28.1	29.5	30.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8	33	-18	44	62
EPS(원)	14	60	-33	80	107
YoY(%)	-59.4	323.9	적전	흑전	34.4
PER(배)	0.0	33.2	N/A	28.4	22.2
PSR(배)	0.0	9.9	11.6	6.9	5.1
EV/EBIDA(배)	N/A	1.1	32.8	18.0	12.8
PBR(배)	0.0	11.9	7.2	4.9	4.3
ROE(%)	14.5	43.5	-12.5	19.2	21.0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5/25)	2,380원
52주 최고가	2,820원
52주 최저가	1,925원
KOSDAQ (5/25)	872.69p
자본금	55억원
시가총액	1,384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5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1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9억원
외국인지분율	1.71%
주요주주	디엠에스 외 4인
	라중주
	37.91%
	19.3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0	20.5	1.1
상대주가	-1.0	40.2	11.4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 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마이크로 니들링 원천기술 기반해 RF장비 생산

마이크로니들 RF(고주파)에 기반한 미용 의료기기 기업

2020년 코스닥 상장한 에스테틱 의료기기 제조업체이다. 마이크로 니들링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RF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최초로 300 μ m 타겟(기저막) 치료기술을 기반으로 다중 펄스형 RF 기술과 마이크로니들 시스템을 결합한 제품을 출시했으며 NA Effect 기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총 55개 특허, 글로벌 20개 국가 의료기기 인증을 바탕으로 60개 이상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2021년 제품별 매출 비중은 에스테틱 장비 74%, 소모품 25%, 기타 1%로 구성된다. 에스테틱 장비는 RF, Laser, Led 장비로 구성되며 핵심 제품은 Scarlet, Sylfirm, Sylfirm X이다. Scarlet은 2011년 출시되었으며 모공 축소, 주름 개선, 여드름 흉터 치료에 특화되어 있다. Sylfirm은 2015년 출시된 장비로 기미, 홍조, 피부 트러블 치료에 사용된 기존 레이저 장비 치료를 RF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최초 장비이다. 2020년 출시한 Sylfirm X의 경우 Scarlet, Sylfirm의 장점을 모두 구현할 수 있으며 동사 의료기기 중 가장 높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다. Sylfirm은 아시아/중동, Sylfirm X는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동사의 수출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



자료: 비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비율의 원천 기술

NA Effect
Nov. 5th 2015 게재
<http://www.nature.com/articles/srep16735>

SCIENTIFIC REPORTS
Electromagnetic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Bipolar Radiofrequency Tissue Reactions via Invasive Non-Insulated Microneedle Electr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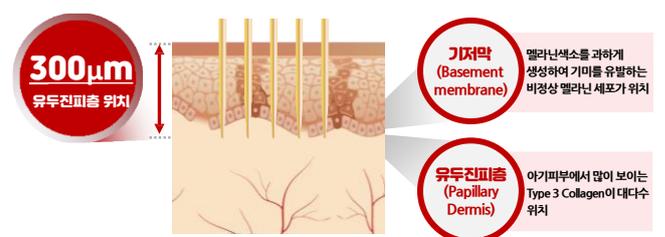
NA Effect
조각비밀한 Micro Needle을 통해 Bipolar RF가 인가되면 조각 형성 시술 후 4주 동안 피부 표면에서 콜라겐 생성을 모공의 열점 형성하는 현상

NA Effect를 이용한 치료

- ① 모든 피부층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효과적 치료
- ② 전파층에 강광열을 전달하면서 피부 표면의 화상을 예방하는 안전성 치료
- ③ 피부 표면이 손상되지 않아 환자의 시술 후 회복기간이 짧은 시술

자료: 비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세계 최초로 300 μ m 타겟 치료가 가능한 SYLFIRM X



세계 최초로 300 μ m 타겟치료가 가능한 SYLFIRM X

300 μ m를 타겟하여 치료할 경우 유두진피층에서 Type 3 Collagen 재생이 활성화되고, 기저막에 위치한 기미를 유발하는 멜라닌세포를 치료하여 피부재생, 기미제거에 효과적

자료: 비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고부가가치/복미를 중심으로 한 신규 미용기기 수출 성장세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2020~2024F 연평균 성장률
11% 전망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 중이다. 소득 수준의 증가, 수요 연령층 확대, 기술의 발달로 인한 효과 증대 등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 추세로 안티에이징에 대한 욕구도 반영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미용 성형에 대한 수요는 필수 소비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용 성형을 위해 성형수술이나 특정 부위 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 위주였다면 특신, 필러 등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RF(고주파), HIFU(초음파) 등의 최소침습/비침습 시술이 인기를 끌며 새로운 시장이 더해지며 전체 미용 성형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연평균(20~24F) 11%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2013년 이후 미용 성형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0.3%를 기록하며, 2019년 12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0~2024년까지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11%를 상회하며 2024년 약 198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에스테틱 수요 성장성과 직결되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은 글로벌 대비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20년 1000억원을 돌파하며 2014~2020년 연평균 성장률 19.7%를 달성하였고, 글로벌 12.5% 대비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과거부터 한국은 전세계에서 성형, 미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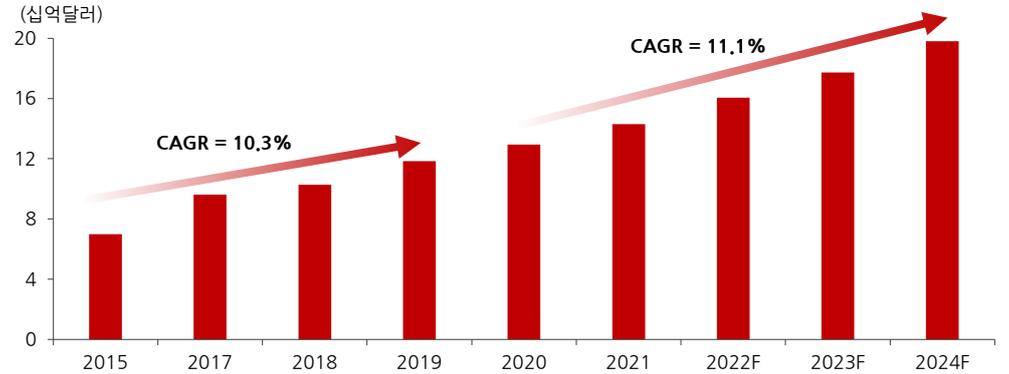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고성장 중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SAPS)에 따르면 국내 인구 천명당 연간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으로 가장 많다. 국내 전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대비 미용 의료기기 비중은 약 14%로 추산된다. 글로벌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에스테틱 용 의료기기 비중은 아직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 초입 구간으로 볼 수 있다.

미용 성형 방법은 크게 침습/최소침습(비침습 포함)으로 분류된다. 최소침습으로는 보툴 리눔 독신, 필러, 리프팅, 냉각 지방분해 등이 대표적이고, 침습시술로는 외과적 성형수술을 동반한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트렌드는 최소침습으로, 외과적 수술로 회복이 장기화되는 침습 보다 통증이 적고 일상 생활 복구가 용이해 2014~2018년 연평균 한 자릿수 후반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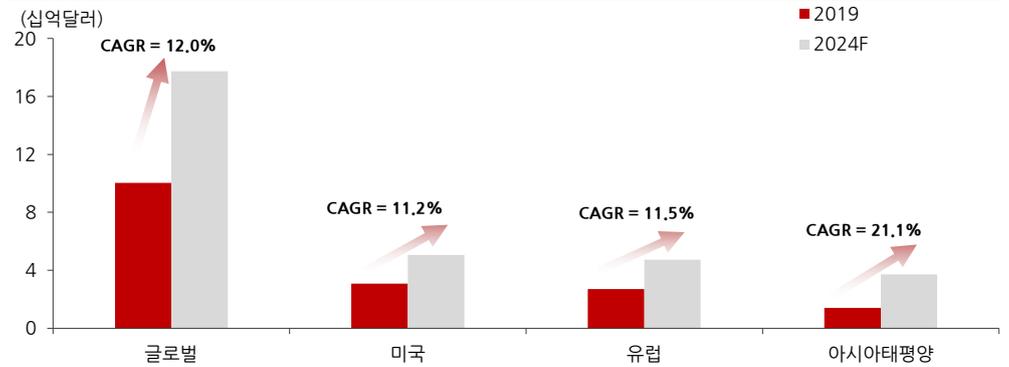
비침습/최소침습 시술의 종류에는 크게 레이저, HIFU(고강도 접촉 초음파), RF(고주파) 등으로 나뉜다. 레이저는 전통적인 시술 방식으로 최근엔 색소, 기미, 체모 등에 특화돼 사용된다. HIFU는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체내 한 점에 집중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피부 손상이 제한되고 리프팅, 얼굴 라인 정리 특화에 효과적이다. RF는 고주파를 통해 피부 심층에서 심부열 발생시켜 피부 탄력감 및 주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각 시술마다 특징이 다른 만큼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산업 내 주요 업체들의 동반 수혜가 예상된다.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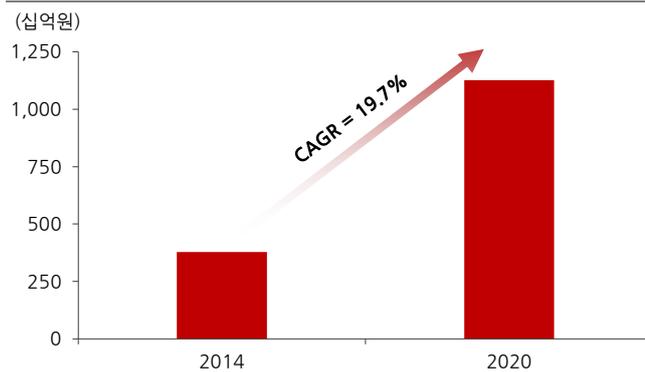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병, 의원용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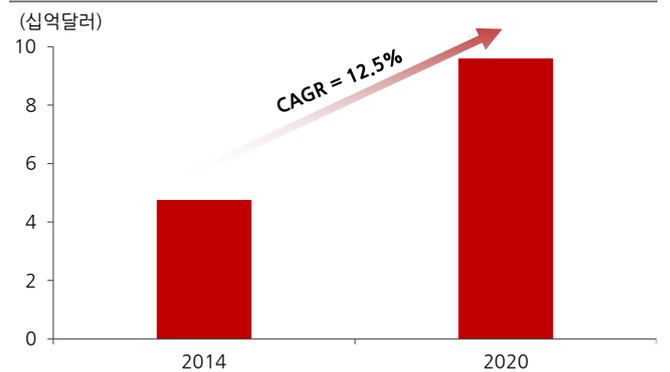
자료: VynZ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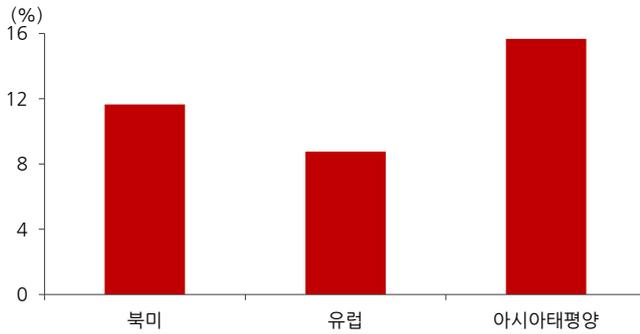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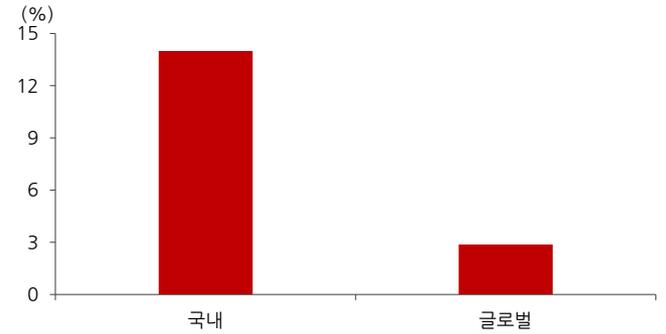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0년간 지역별 미용 의료기기 시장 C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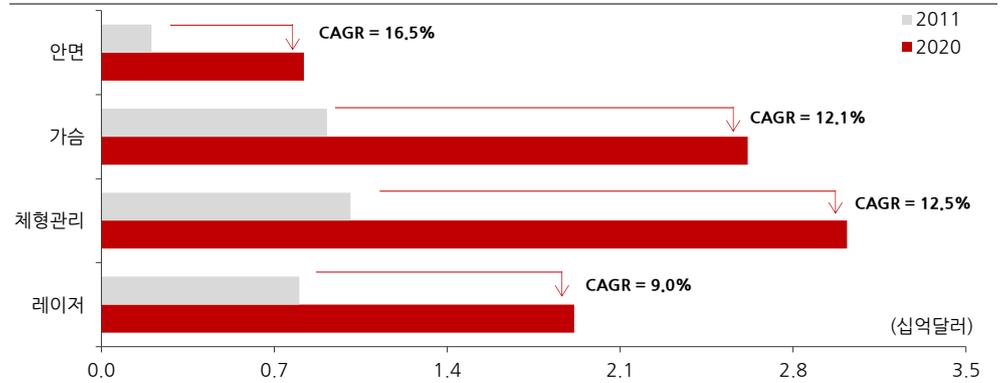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의료기기 대비 미용 의료기기 비중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야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RF, HIFU 방식 비교

	RF	HIFU
에너지원	고주파	초음파
에너지 전달 깊이	진피층	근막층
시술 대상	얇고 노화된 피부	두껍고 지방 많은 피부
시술 주기	1~2 개월 마다	한달에 3, 4 번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업체 리스트

부문	주요 기업	시가총액 (십억원)	주요 사업 내용
미용 의료기기	파마리서치	849	HA, PDRN 기반 의약품, 의료기기 및 에스테틱 기기, 화장품 제조 업체
	제이시스메디칼	613	HIFU, RF, 레이저, 소모품 기반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	613	레이저, RF, HIFU 기반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	1,111	슈링크가 대표적. HIFU, RF 장비, 카트리지가 기반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
	비율	138	레이저, RF 장비 및 소모품 기반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
	인터로조	397	컨택트렌즈 제조사로 자체브랜드 클라렌 및 ODM 사업 영위
보톡스, 필러	휴메딕스	196	HA 원료 기반 의약품, 에스테틱(필러, 보톡스), 점안액, 관절염치료제 제조 업체
	휴젤	1,512	보톡스, 필러 업체. 2020년 10월 레티보(보톡스) 중국 품목 허가 승인
	대웅제약	1,964	의약품, 보톡스(나보타 미국 소송 종결) 제조 및 판매
	메디톡스	835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보톡스 제조 및 판매

주: 시가총액은 2022. 05. 25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고부가가치 제품
Sylfirm X 중심으로
수출 고성장 중**
북미를 중심으로 신제품 수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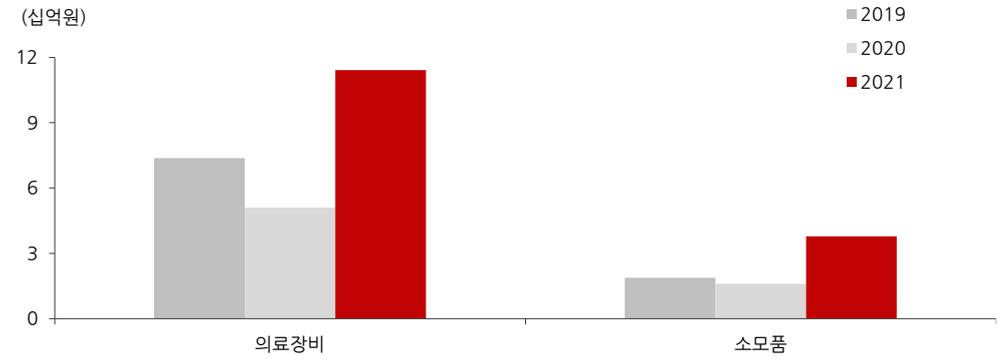
비올은 2020년 Scarlet, Sylfirm 장점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신규 미용 의료기기 Sylfirm X를 출시했다. Sylfirm X는 CW(Continuous Wave)와 PW(Pulse Wave)가 함께 구현 가능해 통증이 최소화되고 시술 직후에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기존 Sylfirm의 모공 수축 효과와 Scarlet의 타이팅 효과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Sylfirm X의 판매 가격은 Scarlet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인 만큼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은 바이러스 이슈 완화로 본격적인 전략 지역 컨퍼런스 및 현지 Key-doctor 향 마케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Sylfirm X 수출 성장세로 동사의 의료장비 수출액은 2019~2021년 연평균 성장률 +24%를 기록했으며 1Q22년에는 전년 대비 +138%로 대폭 증가했다. Sylfirm X는 FDA(미국), MFDS(대한민국), CE(유럽) 인증을 보유했으며 2022년 연말 안에 CFDA(중국 의료기기 허가)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의료기기업체 발전 및 보호를 위해 해외 업체의 미용 의료기기 승인을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사는 중국 에스테틱 시장 진출을 위해 2021년 중국 시후안그룹과 5년간 180억원 수준의 Sylfirm X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의료기기 인증도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후안그룹은 중국 의약품 업계 3위 업체로 양사의 증장기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및 글로벌 미용기기 경쟁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동사의 CFDA 승인 이후 중국 수출 가시화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 및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

**의료장비 보급 효과로
마진을 높인
소모품 성장 가속화**
장비 보급 확대 → 이익률 좋은 소모품 성장 가속화

미용 의료기기는 시술 시 소모품 사용이 동반된다. 통상적으로 소모품 매출총이익률은 80% 이상이며 RF 기기는 시술 환자 당 소모품이 교체되며, HIFU 기기는 카트리지 소모 정도에 따라 재구매가 필요하다. 비올의 주력 의료장비는 모두 RF(고주파) 기술에 기반하며 소모품은 1회용 마이크로 니들이다. 동사는 2021년부터 피부과/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미용 의료장비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미용 의료장비 매출액 YoY 성장률 +38%를 달성했다. 동사의 의료장비 확산 및 소비자 인지도 개선 효과는 2022년 소모품 매출 고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 1분기의 경우 작년 북미 중심 수출된 미용 의료장비 소모품 수요 증가로 소모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연간 소모품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81억원을 예상한다. 2022년 전체 매출액 중 소모품 매출 비중은 30%를 기대한다. 동사는 북미 마케팅 강화 및 중국 의료기기 인증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비 증가로 2022년 공격적인 비용 집행이 불가피하나 수익성 좋은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로 연결 OPM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다.

의료장비, 소모품 수출액 추이



자료: 비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ylfirm X



자료: 비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ylfirm X의 일회성 팁(소모품)



5*5(25Pin),
2mm

X-25 Tip
(Full Face)



5*5(25Pin),
2mm

XE-25 Tip
(Full Face)



5*5(25Pin),
1.5mm

XA-25 Tip
(Inten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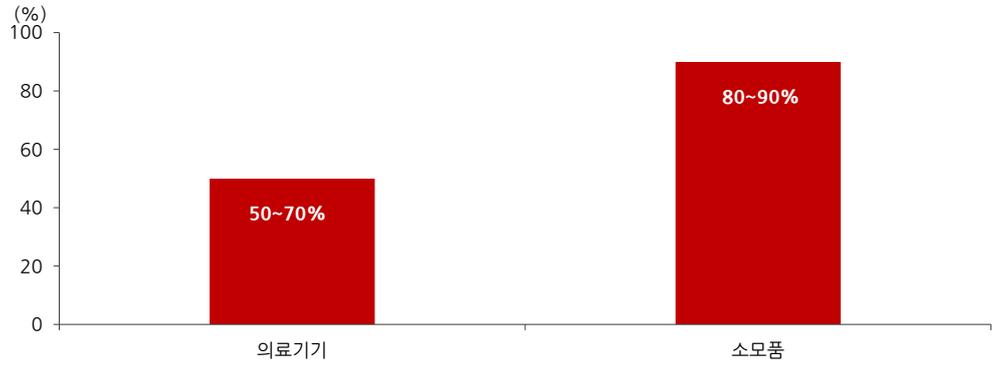


3*6(18Pin),
1.5mm

XW-18 Tip
(Narrow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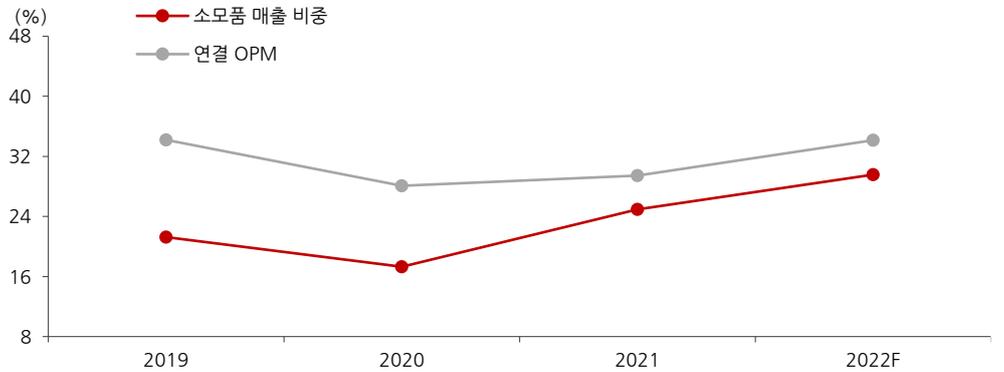
자료: 비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소모품, 의료기기 GPM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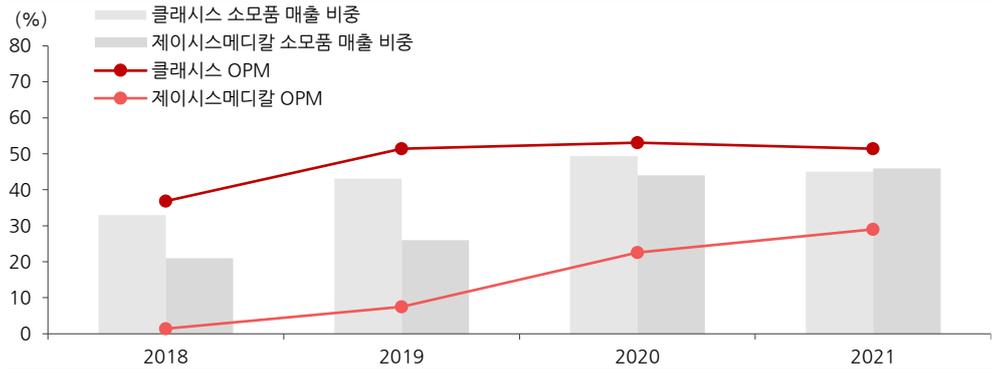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소모품 매출 비중, 연결 OPM 추이 및 전망



자료: 비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클래시스, 제이시스메디칼의 소모품 매출 비중 및 OPM 추이 비교



자료: 각 사 재무제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2F 매출액 274억원(+49% YoY), 영업이익 84억원(+55% YoY)

2021년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

비올은 2021년 매출액 184억원(+51.2% YoY), 영업이익 54억원(+58.5% YoY)을 기록했다. 글로벌 에스테틱 RF, HIFU 트렌드 강화에 따른 수혜, 2021년 하반기 신제품 북미 수출 호조, 인지도 개선에 따른 소모품 매출 동반 성장에 기인한다. 2021년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었으며 2022년에도 외형 성장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돋보일 전망이다.

2022년 고부가가치 Syfirm X, 마진이 높은 소모품 수출 증가 전망

2022년 매출액 274억원(+49.1% YoY), 영업이익 84억원(+55% YoY)을 예상한다. 주요 제품별 예상 매출액은 의료장비 190억원(+40.4% YoY), 소모품 81억원(+76.7% YoY), 기타 3억원(+16.4% YoY)을 전망한다. 통상적으로 1분기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긍정적 계절적 효과는 없으나 동사는 의료장비 및 소모품 수출 호조를 통해 1Q22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5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68% 증가한 14억원을 달성했다. 2022년 현지 중심 마케팅 강화 및 해외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개발비 확대 등 공격적인 비용 집행으로 연간 판매관리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05억원을 전망한다.

2022년 하반기 Syfirm X의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승인 및 4분기 중국 런칭으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 동사의 연간 Full Capa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되며 증가하는 해외 수요 대응을 위해 2022년 9월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연간 Full Capa는 약 5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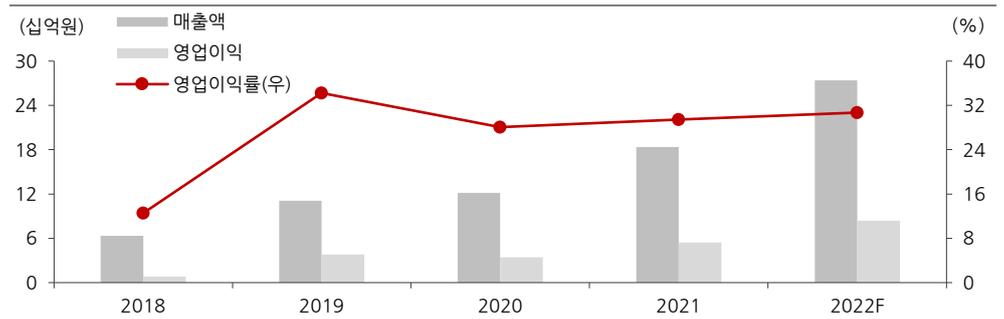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	111	122	184	274
의료장비	84	98	135	190
소모품	24	21	46	81
기타	3	3	3	3
영업이익	38	34	54	84
지배주주순이익	33	-18	44	62
YoY 증감률				
매출액	75.0	9.6	51.2	49.1
영업이익	377.3	-10.0	58.5	55.3
지배주주순이익	323.9	적전	흑전	40.6
영업이익률	34.2	28.1	29.5	30.7
지배주주순이익률	29.9	-14.9	24.1	22.8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비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현재 주가는
2022년 예상 EPS 기준
PER 22.2배**

동사의 현재 주가는 2022년 예상 EPS 기준 PER 22.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2년 리오프닝 수혜, 선진국 수출 모멘텀, 시술 수요 확대에 따른 고마진 소모품 동반 상승 효과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클래시스, 제이시스메디칼, 파마리서치, 인터로조) 12MF PER 밸류에이션은 20배 중반을 돌파 후 현재 3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클래시스의 경우 2017년 → 2020년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했으나 영업이익률은 31%(2017Y) → 53.1%(2020Y)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속화되며 기업가치는 기존 12MF PER 10배 후반에서 20배 후반으로 리레이팅을 경험했다. 2021년 에스테틱 중소형 업체 중 선진국 수출 모멘텀 본격화로 주목받은 제이시스메디칼은 2021년 3월 코스닥 스펙 상장 이후 201년 8월까지(12MF PER 32배) 주가 상승률 120% 이상 달성했다. 비올의 경우 2021년 하반기 북미를 중심으로 신규 RF 장비 판매 호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2022년 북미 MS 강화 및 하반기 중국 CFDA 진출 기대감을 보유한 상황이다. 장비 매출 가속화와 함께 수익성 좋은 소모품 수요 동반 성장세도 기대되는 만큼 2022년 주목할 만한 에스테틱 유망 업체로 판단한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12MF PER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클래시스, 제이시스메디칼, 파마리서치, 인터로조

12MF PE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2MF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포트폴리오 다변화
구축 필요**

비올의 성장동력은 RF기반 의료장비 및 소모품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에스테틱 트렌드는 과거 필러/보톡스 → HIFU → RF로 변화했다. 동사는 최근 트렌드에 적합한 장비 출시로 고성장 구간을 지나고 있으나 포트폴리오 다변화 부분에 취약한 만큼 향후 트렌드 변화에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HIFU 장비 특히 이슈에서 자유로운 장비 개발을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보완할 예정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F
매출액	63	111	122	184	274
증가율(%)	-11.0	75.0	9.6	51.2	49.1
매출원가	14	28	36	61	85
매출원가율(%)	22.2	25.2	29.5	33.2	31.0
매출총이익	49	83	86	123	189
매출이익률(%)	77.9	74.4	70.6	66.9	69.0
판매관리비	41	45	52	69	105
판매비율(%)	65.1	40.5	42.6	37.5	38.3
EBITDA	10	42	40	61	91
EBITDA 이익률(%)	15.4	37.6	32.5	33.4	33.3
증가율(%)	-58.8	328.2	-5.1	55.1	48.8
영업이익	8	38	34	54	84
영업이익률(%)	12.5	34.2	28.1	29.5	30.7
증가율(%)	-64.2	377.3	-10.0	58.5	55.3
영업외손익	1	2	-52	-5	-8
금융수익	1	2	1	7	5
금융비용	1	1	5	2	3
기타영업외손익	0	1	-49	-10	-1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8	40	-18	49	76
증가율(%)	-61.4	368.5	적전	흑전	54.7
법인세비용	1	7	0	5	14
계속사업이익	8	33	-18	44	6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	33	-18	44	62
당기순이익률(%)	12.3	29.9	-14.9	24.1	22.8
증가율(%)	-59.4	323.9	적전	흑전	40.6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	33	-18	44	62

현금흐름표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	50	-4	80	32
당기순이익	8	33	-18	44	62
유형자산 상각비	1	3	5	7	7
무형자산 상각비	0	0	0	0	0
외환손익	0	0	4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6	7	-38	20	-47
기타	3	7	43	9	1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	-4	-54	-31	3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	-3	-14	-18	0
기타	-14	-1	-40	-13	3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0	-2	-6	-5	0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3	-7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2	-3	2	0
기타현금흐름	0	-0	13	2	-10
현금의증가(감소)	-11	44	-49	46	52
기초현금	31	20	65	15	62
기말현금	20	65	15	62	113

재무상태표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F
유동자산	56	97	207	264	322
현금성자산	20	65	15	62	113
단기투자자산	1	0	128	140	110
매출채권	13	21	39	27	50
재고자산	17	10	22	29	39
기타유동자산	4	1	2	6	10
비유동자산	19	24	30	35	28
유형자산	12	17	16	21	15
무형자산	5	5	2	2	1
투자자산	1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1	2	12	12	12
자산총계	75	121	237	299	350
유동부채	15	27	20	31	19
단기차입금	10	10	7	0	0
매입채무	1	1	1	5	5
기타유동부채	4	16	12	26	14
비유동부채	0	1	20	3	3
사채	0	0	18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1	2	3	3
부채총계	15	28	40	34	22
지배주주지분	54	87	69	114	176
자본금	2	50	55	57	57
자본잉여금	8	3	78	99	99
자본조정 등	-5	-47	-5	-5	-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54	87	69	114	176
자본총계	59	93	197	265	328

주요투자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F
P/E(배)	0.0	33.2	N/A	28.4	22.2
P/B(배)	0.0	11.9	7.2	4.9	4.3
P/S(배)	0.0	9.9	11.6	6.9	5.1
EV/EBITDA(배)	N/A	1.1	32.8	18.0	12.8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EPS(원)	14	60	-33	80	107
BPS(원)	109	169	360	463	558
SPS(원)	116	203	222	330	47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14.5	43.5	-12.5	19.2	21.0
ROA	11.3	33.9	-10.1	16.6	19.2
ROIC	20.3	73.7	53.3	79.0	99.5
안정성(%)					
유동비율	368.4	361.3	1,043.8	858.0	1,697.2
부채비율	25.6	30.1	20.1	12.8	6.7
순차입금비율	-17.1	-55.5	-58.0	-73.5	-66.2
이자보상배율	25.1	99.2	122.2	144.0	626.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9	1.1	0.7	0.7	0.8
매출채권회전율	6.1	6.5	4.0	5.5	7.1
재고자산회전율	4.7	8.0	7.6	7.2	8.0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